안전도, 보건도 시스템으로 뿌리 내려

건화트렐러보그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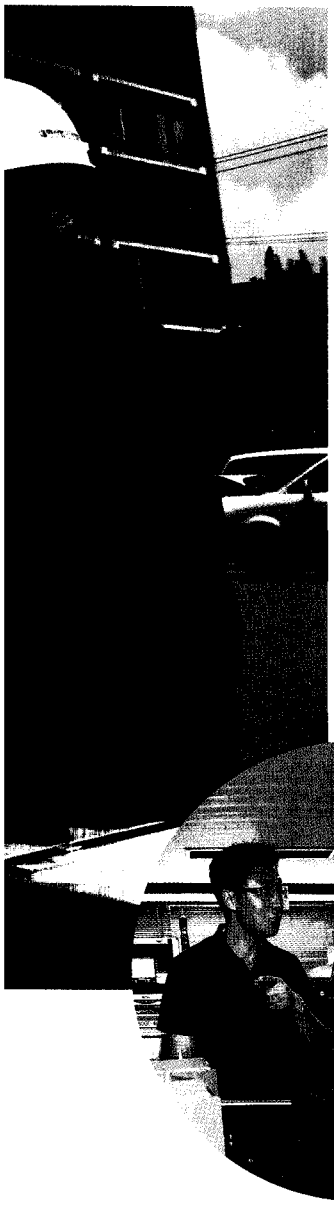
농기구와 자전거 부품에 사용되는 패킹을 생산하던 기업이 첨단 자동차 부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방진고무와 등속조인트 부트(Boot)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데는 지난 45년간 자동차부품 생산 외길을 고집해온 '우직함' 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우직함' 으로 건화트렐러보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일 만큼,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발전해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대부분에 건화트렐러보그의 방진고무와 등속조인트 부트가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이곳은 자동차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 첨단자동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답게 모든 생산공정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엄격한 기준 적용

건화트렐러보그의 공정은 크게 고무류, 금속류 공정, 그리고 이를 일체화시키는 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모든 공정 모두 엄격한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방진고무의 경우 수입된 천연고무에 20여종의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다. 이것이 성형과 마무리 공정을 거치면서 열과 추위, 기름, 충격 등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진다. 또 여기에 내구성, 내열성 등 엄격한 시험가동과 측정시스템 평가를 거쳐



비로소 완성차 업계에 납품된다.

이렇듯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에서도 이미 소문이 났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경영 의지 돗보여

철저한 관리기준은 제품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철저히 그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방진고무와 등속조인트 부트 생산공정에는 상당히 많은 유해위험기계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출성형 공정에서는 사용되는 사출성형기만도 70대가 넘는다. 그만큼 건화트렐러보그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이곳 사출성형 공정에서는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안전경영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화재위험은 세계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FM글로벌 위험성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기준은 국내법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수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화재 위험의 여지를 확실히 제거한다.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점검기관인 윌리스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2년에 1회씩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보건 그리고 소방안전 평가시스템은 전 세계 32개의 트렐러보그 계열사를 상대로 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 경쟁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그 수준도 시간이 갈수록 한 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건화트렐러보그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시스템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곳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심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건화트렐러보그에는 유압으로 중량물을 옮기는 고가의 기계들을 배치하여 직원의 허리부담을 줄여주었다. 평소 20kg에서 30kg의 천연고무를 들었던 근로자들에게는 마음까지 편해지는 조치였다. 그리고 높낮이가 가능한 의자 100개를 구입하여 전면 교체를 하는 등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무려 30여 가지의 아이템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글로벌기업 다운 안전시스템 정착

건화트렐러보그는 이직율이 적다. 그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점차 많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화트렐러보그에서는 고령화를 대비해 보건분야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가고 있다. 지금도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매월 지도점검을 받으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근 관심을 높였다. 채광이 없어 어두운 공정을 밝게 만들고, 수십대의 기계기구에서 나오는 소음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최상의 작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환기시설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내년에는 OHSAS 18001과 KOSHA 18001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반의 건화트렐러보그를 만들어 간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허용훈 대표이사 인터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을 만들어 갈 터

과거의 안전이 경영주와 근로자간의 도덕적 가치였다면 지금은 기업경쟁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난 2005년부터 안전과 보건 그리고 소방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오고 있는 것도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렐러보그사의 안전보건 가이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건화트렐러보그만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 정서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OHSAS 18001과 KOSHA 18001을 인증 받아 3년 안에 안전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5년 이내에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창설할 계획입니다.